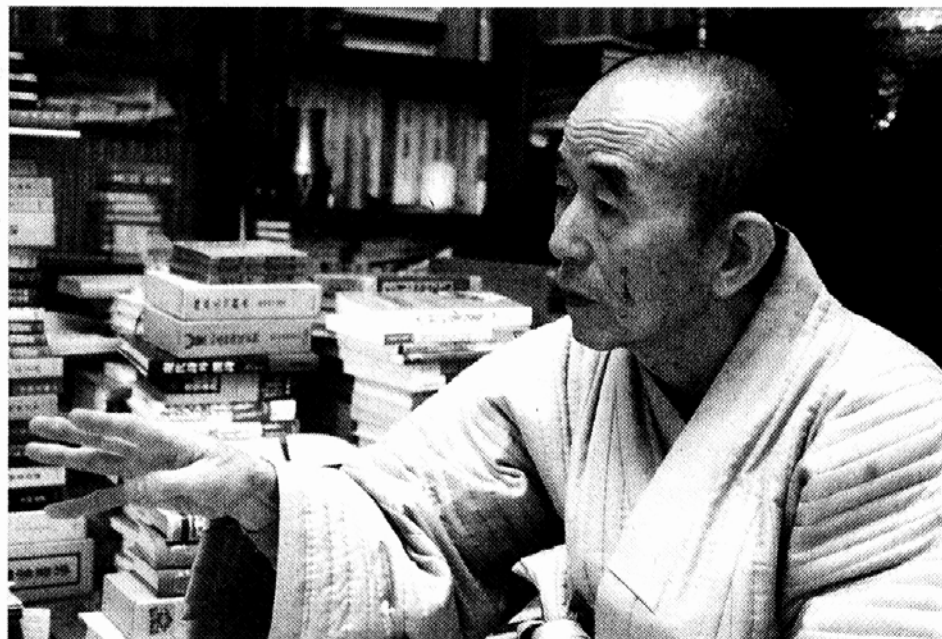




◇정진족 짚을 내어 가람 붓을 짚는다. 붓글씨를 통해 불자들에게 조사들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중성스님은 외국에서의 선에 대한 관심을 자원으로 여기기보다는 더욱 정진하라는 경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는데, 스님께서는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은 누가 뭐래도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입니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전거(典據)를 대라고 하는데, 선의 근원인 삼척전심(三德傳心)은 <선문경>에 나오는데, 또 <선문경>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왕안식은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화두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이 어째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외적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근본이 마음인가라는 원리를 안 뒤에 참선하라고 했습니다. <초심실자경문>에서도 차례를 건너뛰면 안된다고 했어요.

성철스님께서는 백일법문을 하셨는데, 모두 교학을 말씀하셨어요. 화엄, 천대, 화두 드는 법, 과학 얘기를 하셨어요. 수좌들로 하여금 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일법문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임제선원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시킵니다. 기초교리도 가르치고, 어록도 가르칩니다.

책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4만권을 읽었는데요. 선학적으로 치면 대학의 도서관보다 많을 겁니다. 웬만한 선학서적은 모두 있습니다.

정치 과학 등 일반서적도 많습니니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름대로 일가견을 피력하고요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매년 책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작년에는 상금을 주고, 올해는 동불만 만년필을 보내왔더군요. 이제 책은 그만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수행을 하고 싶어도 사할 돈을 없애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은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던지 쉽던지, 나는 애초부터 선 본위로 하려고 이곳을 임제선원이

라 이름붙였어요. 일반 보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기초 교리 가르치고, 화두 대신 선어록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화두 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화두 드는 법만 잘 알면 어디 가서도 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은 자기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두 또한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긴 쉬워도 실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선원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신도들이 오지 않으니가 기도, 염불, 교리 등으로 포교한다고 하

물질 풍요해도 항상 불만 화두일념이면 망상사라지니 처한 자리에서 '나' 찾아야

는데, 어려우나 쉬우나 선은 해야 합니다. 옛 조사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계삼천경(持戒三千經) 송경천만편(誦經千萬篇) 불어일식경(不如一食頃) 단좌역일상(端坐坐一食頃) 삼천 가지 계를 지키고, 천만권의 경전을 독송해도, 밥 한술 먹는 사이에 마음의 실상을 얻하는 것만 같지 않다는 뜻이지요. 자기 주체를 세우는 가르침을 뱀 불교는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근래 여러 곳에 선원이 생기고,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가수행자에게는 지도해주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수행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선가에

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온 불문율입니다. 문헌선사계에서는 반드시 견성하고 문자에도 밝은, 종철자하게 가르칩니다. 대종장(大衆宗)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法器)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경계하십시오. 행해(行解)가 상응해야 함을 조사스님들이 역설하신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선지식은 상철선사, 서용선사, 향곡선사입니다. 세 분 모두 공교롭게도 임자생으로 상철선사와 향곡선사계서 살

아계신다면 올해 세수 여든아홉입니다. 서용선사는 일찍이 여록의 왕이라고 하는 <임제록>을 연의하시고 착어를 붙여 내신 스님입니다. 지금은 선문제일사인 <백암록제창> 법문을 하고요, 수행자들을 제집하고 계십니다.

상철선사는 내외간에 두루 해박했습니다. <선문정로(禪門正路)> <한국 불교의 법맥> <본지풍광(本地風光)>을 펴내셨는데, 참선자의 필독서입니다. 상철선사계서는 돌아가시면서 후학들에게 "격정할 것 없다. 내가 해 놓은 것을 보고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병안종사가 계시지 않는다면 남기신 저술을 보면 됩니다. 옛 가르침에도 "심조고교 고교심조(心照古教 古教心照, 마음을 옛 어른들의 가르침에 비취 본다)"라고 했어요.

선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인간상을 스님께서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 하시는데, 어떤 것인가요?

▲내 말이 아니고 <임제록>에 나옵니다. 높고 낮음의 어느 위치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해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임제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 하셨습니다.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불법은 인위적인 꾸밈이 필요하지 않다. 꾸밈이 없는 일상의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본래의 불법이니, 번소에 가고, 웃을 입고, 일을 하며,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웃지만 지혜있는 사람은 꾸밈없는 일상의 소용함을 안다. 옛사람도 '밥을 향하여 공부를 짓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밖에서 끌어온 것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떠나버릴 것이니,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실의 눈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고 이르지 않았는가.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어느 곳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수취작주 임처개진,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위의 높낮이, 하는 일의 귀천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처지에서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때 묻히지 않는 일만 할 수 없잖습니까. 사람의 빛나는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대담=정성문 차장 (swjung@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산삼 먹은 범용스님

오대산이나 설악산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 어쩌다가 산삼을 캐는 심마니를 만날때도 있고 또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캐는 산삼을 보기도 한다. 휴전선 이남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이 가장 산삼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고 또 그곳의 산삼이 약효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산삼 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살고 있을 때다. 그곳 오대산에서 만난 내리 몇 철을 산 스님 가운데 '범용'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범용이라는 불명을 가진 스님이 두 분인데 그중 한 스님은 시력이 몹시 안 좋아서 무엇이든지 눈앞에 대고 보아야 사물을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지독한 근시에 몸도 약했다. 눈이 나쁘면서도 평소엔 안경을 쓰지 않고 지냈는데 왜 안 쓰느냐고 물으면 그냥 안경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 먼 범용스님'이라고 불렀다. 눈도 나쁘고 몸도 약했지만 마음은 썩 좋은 편이어서 우리가 '눈 먼 범용스님' '눈 먼 범용스님' 하고 불렀던 것은 내색 한번 안 하는 그런 스님이다.

늦은 가을날이었다. 결계를 앞두고 있는 때라 스님들 대부분이 밖에 외출하고 없었다. 범용스님은 혼자 남겨 되었다. 무료한 나머지 이곳 저곳 산내 암자며 큰절(월정사)이

거금주고 산 귀한 산삼 맛이 어떤가 궁금하다고 한입에 먹어버린 객승

며 근처의 사찰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데 오대산이 워낙 큰 곳이라 며칠씩 걸렸다.

그런 중에 어느 사찰의 객실에 묵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차나 한잔 하라고 방으로 불렀다.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싸하니 인삼냄새가 나는지라 무심코 "냄새가 썩 좋네요" 한마디 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이 스님이 냄새만 가지고도 산삼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는 심마니한테 오래 된 산삼을 한 뿌리 샀습니다. 스님은 냄새만 맡고도 아시니 한번 보시고 감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닌가. 범용스님은 산삼에 대해서는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었는지라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빗장이 웃기만 했다. 주지스님은 산삼을 꺼내왔다. 우선 포장부터가 달랐다. 붉은 비단에 싼 보따리를 풀자 그 속에서 다시 오동나무상자가 나오고 오동나무상자를 열자 파란 이끼를 깔고 그위에 산삼이 누워 있더라는 것이다. 주지스님은 연신 "진짜가 맞지요? 낫거나 된 것 같습니까?" 물었지만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범용스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는 "예! 예! 아주 좋습니다"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밖에서 주지스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주지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밖에 있는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범용스님은 그 산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꼭꼭 씹어먹어 버렸다. 실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주지스님은 눈앞에서 벌어져 일어난 일을 말조차 못했다. 거금을 주고 산 귀한 산삼이었다. 그런 물건은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것인데 그만 생면부지의 객승이 먹어버렸으니 이런 기가 찰 노릇이 어디 있었는가. "아니 스님! 어찌 이럴수가 없소?" 이것은 처음에 나온 절장은 말이고 화가 난 주지스님 입에서는 험한 욕이 나오기도 할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범용스님은 "산삼은 먼저 먹는 사람이 일지라는 말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산삼이 또 맛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 먹었습니다"라는 말만 했다. 것이다.

주지스님의 입에서는 실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산삼은 범용스님의 배속에 들어가고 만 것을, 사실, 그 산삼은 주지스님이 따로 건히 쓸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화를 참고 "이미 먹은 것을 어찌 하겠소. 약효를 보려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두 세기를 굶도록 하시오. 그리고 객실에서 잠이나 꼭 자도록 하시오" 했다고 한다. 스님들에게는 이런 화통한 일면도 있는 것이다.



그림·문병성

산삼은 천하에 알려진 영약(靈藥)이다.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노인을 회춘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약이다. 산삼에 사는 스님들에게도 공부를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공부에 일몰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다. 반대로 젊고 건강한 스님이 탐해서는 안되는 약이기도 하다.

양기를 지나치게 강하게 하여 오히려 수행을 방해한다. 오음성고(五陰盛苦)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산삼을 먹은 것이다. 그후 범용스님은 겨울 내내 몸에서 나는 열기에 시달렸다. 오대산은 몹시 추운 곳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 큰 방에 따뜻하게 불을 때고도 스님들은 추위를 시달린다. 그런데 범용스님은 큰방의 온기도 견디기 힘들다는 듯 몸에 열이 나 겨울 내내 내의를 벗고 지낼 정도였다. 기운이 넘쳐서 계속되는 공부에도 지칠 줄을 몰랐다. 남달리 팔일 부처님도 절 용맹정진 때도 힘줄을 모르고 거뜬하게 해냈다. 보통 반절제를 지내면 모두들 힘든 공부에 지치지 마련이다. 하지만 범용스님은 도무지 지치지 않았다. 모두들 산삼을 먹은 스님은 다르다고 놀려대면 웃으면서 "몸은 건강해졌는데 속아나는 기운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줄 모르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나도 저런 행복한 고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네" 하고 놀렸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형스님이 아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蔞陳蕒)을 여러 저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지낸 왕귀, 당귀, 자연산 복본재산물기등 8종의 약초를 기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물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조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중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구생복지원 강암형스님
선착순 300명에게는 배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행과 불재를 뿌리고 제배한 토종홍화씨를 1000분을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들, 임신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5. 고혈압, 저혈압
3. 피부를 맑게 해 줍니다.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11. 간이나 내분사할	17.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6. 당뇨병	13.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줍니다.	19. 불면증, 황달
7. 신경통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신초에도 탁월한 효과

주문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대리점 및 판대사원 모집

전문간요법 방식 제조/발명특허 제117954호 기시달린 뽕나무의 놀라운 효능!!!

꾸지뽕(산뽕) 엑기스 개발

꾸지뽕 나무, 꾸지뽕 엑기스

1. 야생(산에서 서식하는) 꾸지뽕나무를 채취하여 제를 생산
2. 전통비법에 의한 열탕추출법(10시간이상다림)
3. 수안보 특산물 지정
4. 중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동 체계(생산기술, 연구실험, 위생관리 제부)
5. 충청북도 신지식인 선전(배영원 사장)

▶ 꾸지뽕 엑기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각종삼, 간질환, 당뇨, 고혈압, 변비, 성인병, 술 많이 드시는 분

꾸지뽕나무란?

꾸지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꾸지뽕(산뽕)은 생김새가 보기 좋은 것이 못되고 흔하지 않은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약재로는 꾸지뽕 나무처럼 여러 질병에 두루 뛰어난 효과가 있는것은 찾기 어렵다.꾸지뽕나무는 여러면에서 뽕나무보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뽕나무보다 그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 중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박사 민윤식
- 보도 MBC TV "고향은 지금", KBS TV "7시 뉴스", 중앙일보

구입문의... /수안보 본사 및 총판 (0441)845-0117 /청주점 (0431)213-2551 /대전점 (042)255-8027

※ 전국 대리점 및 유능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산학 중주대학교 TEL. (0441)841-5247
협동 (주)뽕그린식품 충주시 삼미면 용천리 433번지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향토마을

왕토 주력 도구시공
토굴 현장 출장감독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향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0671)634-0223
팩스: 0671)34-1237